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원회 출범

농식품부,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 센터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심의회는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생산자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관련된 단체의 참여를 확대했다.

위원회에는 한국중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협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 6명이 참여했다.

회의 운영도 대면 회의를 원칙

으로 바꾸고 주요 수입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에 일정 물량을 대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심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농산물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과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 제1회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회의 사진

Week's photo



농진청, 전북 김제·부안 벼 생육 후기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0월 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부안 일대 벼 생산단지를 방문해 생육 후기 동향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벼 알곡 충실도와 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살핀 후, 수확 전까지 현장 관찰(모니터링)과 기술지원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벼 생산단지는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 병해충 피해는 크게 없으나, 일부 벼알이 비어 있는 수정 불량 현상이 확인됐다. 이 청장은 벼 생육 관련 문제점과 현장 기술지원 수요를 들은 후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자들과 벼알 익음 정도(등숙 상태) 등을 점검하며 생육 부진 원인을 파악했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벼 생산과 수확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과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이상기상·기후 변화 대응 벼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협,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 2,500호까지 늘린다

‘스마트농업 사업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이사 김주양)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농업 사업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일 산지 도매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이 참석해 ▲농협 보급형 스마트

팜 사업 추진현황·우수 사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 개발·확산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농업용 로봇 등 신기술 도입 ▲스마트팜 농가 교육·사후관리 ▲신규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팜 지원규모 확대 등 스마트농

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보급형 스마트팜을 연말까지 전년 대비 2.5배 확대한 2,500농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농가 선호 기능과 스마트팜 표준 기능을 집약해 일반 스마트팜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스마트농업 사업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과 불활성화로 이중 방어막 구축

전 생육기 매개충 방제 ‘디저스’&친환경 바이러스 방제제 ‘팜월드’

가을철 오이, 참외, 토마토 등 시설채소의 정식이 본격화되면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칼라병),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 바이러스 병해 감염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식물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되면 해당 작물은 바로 폐기하고 보식해야 한다.

바이러스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생육 고사, 잎 말림, 과실 얼룩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므로, 매개충을 차단함과 동시에 바이러스 자체의 활성을 억제하는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농은 다양한 바이러스 매개충을 관리할 수 있는 ‘디저스 유제’와 바이러스 입자를 불활성화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팜월드’를 결합한 종합 바이러스 예방 솔루션을 제시했다.

모든 바이러스 매개충 원천 차단, 2026년 신제품 ‘디저스’
(주)경농의 ‘디저스 유제’(작용기량 30+9b)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든 해충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신개념 원예용 종합 살충제다.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류는 물론 나방과 노린재까지 광범위한 방제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기존 약제에 저항성이 생긴 해충에도 신속하고 확실한 살충 효과를 발휘한다.

가을 작기 정식 후 발생하는 매개충을 동시 방제할 수 있

며, 특히 시설 채소류에서 가장 문제 되는 담배가루이의 성충과 약충의 섭식을 즉시 중단시키고 우화를 억제하여 작물 생육 전반에 걸쳐 매개충 밀도를 낮춰준다.

바이러스 접촉 불활성화 및 식물체 침입 억제, ‘팜월드’
‘팜월드’(공시-2-4-030)는 미생물 추출물 기반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국내 최초로 등록된 식물 바이러스 전문 방제제다.

바이러스 입자에 직접 접촉

하여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식물체 내 침입 및 증식을 강력히 억제하고 정상적인 생육을 돕는다. 매개충 방제 살충제와 혼용 살포하면 바이러스 방제효과가 상승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오이 누른 모자이크병(ZYMV)을 비롯해 고추, 오이, 토마토, 수박 등의 바이러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친환경 자재로서 잔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살충제와 ‘팜월드’ 혼용 처리 시 바이러스 방제 효과 극대화
특히 바이러스 매개충 살충제인 ‘디저스’와 ‘팜월드’를 혼용하여 경엽 살포하면, 살충 효과와 동시에 매개충의 흡즙 과정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여 방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농 제품개발팀 박성호 PM은 “다양한 바이러스 매개충을 동시에 방제하는 ‘디저스’와 바이러스 방제제 ‘팜월드’를 주기적으로 체계 처리하여 시설채소의 고품질 안정 생산을 달성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농 제품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